

# 선발 1루수, 노시환이나 문보경이나

박동원·김혜성·이정후 불박이  
김도영·안현민도 주전 확실시  
중견수는 호수비 박해민 유력  
유격수 윌트컴·김주원 불꽃 경쟁

개막 하루 앞으로... 라인업 관심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을 준비하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말 그대로 한국에서 야구를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 모인 곳이다. 투수 15명, 타자 15명으로 구성된 대표팀에 뽑힌 선수들은 각자 소속팀에서는 대부분 '대재 불가급' 존재감을 지닌 선수들이다. 따라서 류지현 대표팀 감독이 이 가운데 어떤 선수들을 주전으로 활용하는지를 보는 것도 야구팬들에게는 흥미로운 요소다.

한국 대표팀이 2일 일본 오사카에서 일본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와 첫 공식 연습 경기를 치르면서 5일 개막하는 WBC에 어떤 선수들이 선발 명단에 올라갈 것인지 대강의 윤곽을 엿볼 수 있었다. 사실 대회 전부터 어느 정도 주전이 정해지다시피 한 포지션도 있다. 포수 박동원(LG 트윈스)이나 2루수 김혜성(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외야의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한국계 저마이 존스(디트로이트 타이거스)는 큰 변수가 없다면 선발 출전이 유력하다. 또 대표팀 공격을 이끄는 김도영(KIA



2일 일본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평가전 한국 대표팀과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의 경기에서 김도영(왼쪽)이 송로호를 친 뒤 이정후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타이거스)와 안현민(KT wiz)의 경우 누가 지명타자를 맡고, 누가 수비를 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주전으로 나가는 것은 확실하다. 2일 한신전에서 김도영이 3루 수비를 맡고 안현민이 지명타자로 나왔다. 박해민(LG)이 중견수, 이정후는 유격수로 배치됐고, 이 흐름이 WBC 본선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무래도 우리 선수들이 익숙하지 않은 도요돔에서 경기하는 만큼 외야 수비가 좋은 박해민이 중견수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외야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류지현 감독이 2일 인터뷰에서 "대회에서 최적인 라인업을 구성하려면 김도영이 수비에 나갈 수 있다는 전제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힌트다. 김도영이 선발 3루수를 맡게 되면 노시

환(한화 이글스)과 문보경(LG)이 선발 1루수 자리를 두고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계 세이 워트컴(휴스턴 에스트로스)과 김주원(NC 다이노스) 중 한 명이 선발 유격수로 준비하게 된다. 3루와 유격수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워트컴은 상대적으로 쓰임새가 다양한 편이다.

존스와 워트컴은 2일 한신전에서 존스의 내야 안타 1개가 전부였지만 류지현 감독이 "아직 합류한 지 2일밖에 안 됐다"며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면 최소한 5일 체코와 1차전까지는 존스와 워트컴에게 타격감을 찾을 기회를 줄 확률이 높다.

타순의 경우 2일 한신전처럼 김도영-존스-이정후-워트컴 순의 1~4번이 기본값이 될 가능성이 있다. 류 감독은 "본선에서 상대할 투수들은 시속 95마일(약 152.8km) 이상을 던지기 때문에 그런 투구에 경쟁력이 있는 선수들을 전진 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계 선수들의 타격감이 올라오지 않으면 2일 경기에서 6번으로 나온 안현민이 2번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 타격에 중점을 둔 선발 라인업을 짤다면 이정후가 중견수로 가고, 안현민이 외야 한 자리를 보면서 김도영이 지명타자로 나서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이 때는 노시환, 문보경, 워트컴이 선발 3루수 후보가 된다. 우리 대표팀은 5일 체코와 WBC C조 조별리그 1차전을 시작으로 2026 WBC 1라운드 조별리그 일정에 돌입한다.

글=서진=연합뉴스

# 선두 경쟁 끝날 때까지 안갯속

K리그 챔피언십 티켓 경쟁 치열  
男 대한항공·현대 승점 4점 차  
女 도로공사, 현대에 2점 앞서



프로배구  
진에어 2025-  
2026 V리그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챔피언십결정전 직행 티켓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남자부에서는 1위 대한항공과 2위 현대캐피탈, 여자부에서는 1위 한국도로공사와 2위 현대건설이 이번 주에도 격렬한 선두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올 시즌 정규리그 4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승점 66(22승 10패)을 기록 중이다. 마찬가지로 4경기를 남겨둔 현대캐피탈(승점 62·20승 12패)을 승점 4차로 앞서 있다.

대한항공은 한때 현대캐피탈에 선두 자리를 내줬으나 최근 4연승을 내달리면서 다시 주도권을 잡았다. 1일 난적 한국전력을 꺾은 대한항공은 나흘간 휴식을 취한 뒤 6일 5위 우리카드를 만난다.

외국인 선수 카일 러셀이 다소 기록을 보이고 있지만, 임동혁 등 토종 선수들이 든든하다. 특히 부상에서 복귀한 정지석은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하며 최근 4연승의 중심에 섰다. 대한항공은 남은 4경기를 모두 승리해 자력으로 챔피언십에 직행하겠다는 각오다.

현대캐피탈은 5일 플레이오프 직행을 노리는 3위 KB손해보험과 대결한다.

KB손보는 4위 한국전력에 승점 3차로 앞서 있다. 3~4위 간 승점 차가 3점 이하로 좁혀지면 준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는 만큼, KB손보는 매 경기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펼쳐야 한다.

인도 국가대표 출신의 KB손보 새 아시아 쿼터 선수 아밋 굴리아(등록명 아밋)의 활약 여부도 변수다. 한국전력은 7일 11연패에 빠진 최하위 삼성화재와 홈 경기를 치른다.

만약 KB손보가 현대캐피탈에 패하고, 한국전력이 삼성화재를 잡으면 3, 4위가 바뀔 수 있다.

여자부 1위 싸움도 치열하다. 한국도로공사가 승점 63(22승 10패)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현대건설이 승점 61(21승 11패)로 바짝 뒤쫓고 있다.

6연승 중인 현대건설은 5일 3위 흥국생명과의 홈 경기를 치른 뒤 단 이틀을 쉬고 다시 페퍼저축은행과 홈 경기에 나선다.

도로공사 역시 4일 페퍼저축은행과의 홈 경기, 7일 GS칼텍스와 원정 경기 등 빽빽한 일정을 소화한다.

두 팀 모두 4경기씩을 남겨둔 상황이다. 전력상으로는 현대건설이 다소 우위를 점한다는 평가다.

도로공사는 아시아 쿼터 선수 타나차 쉑숏(등록명 타나차)이 오른쪽 발목 인대 파열로 사실상 시즌 아웃됐고 토종 공격수 강소희도 허리 통증을 완쾌하지 못했다.

현대건설 역시 외국인 선수 카리 가이스버거(등록명 카리)가 고질적인 양쪽 무릎 통증을 안고 뛰고 있으나 있는 힘을 다해 투혼을 발휘하고 있다.

결국 선수들의 부상 관리와 전력 유치가 막판 순위 싸움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흥국생명도 3위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흥국생명은 최근 3연패에 빠지며 준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는 위기에 몰렸다. 4위 GS칼텍스는 승점 5차, 5위 IBK기업은행과는 승점 6차 이어서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 판도가 요동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올 시즌 정규리그 4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승점 66(22승 10패)으로 4연승을 내달리고 있다. 특히 부상에서 복귀한 정지석은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하며 그 중심에 섰다. 연합뉴스

# 한국 파워 랭킹 '7위'... 17년 만에 8강 진출하나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8강 진출을 목표로 내건 한국 야구대표팀이 20개 출전국 중 파워 랭킹 7위로 나타났다. 1위와 2위는 각각 강력한 우승 후보인 일본과 미국이 차지했고, 8강 진출을 위해 한국이 넘어야 할 대만은 우리보다 낮은 11위였다. MLB닷컴은 3일(한국시간) 2026 WBC에 참가하는 출전국 20개 가운데 한국 야구대표팀의 파워 랭킹을 7위로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다.

한국 대표팀의 주요 선수로는 주장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세이 워트컴(휴스턴 에스트로스), 김혜성(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꼽혔다. MLB닷컴은 "한국은 2009년 대회 준우승 이후 1라운드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메이저리그 팬들에게 낯설어도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고, 류현진(한화 이글스)처럼 반가운 추억을 되살려 줄 선수도 있다"고 소개했다. 1위는 디펜딩 챔피언 일본이다. 오타니

쇼헤이, 아마모토 요시노부(이상 다저스), 스키 세이야(시카고 컵스)가 주요 선수로 꼽혔다. 3회 우승 경력과 세계랭킹 1위라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오타니가 선발 투수로 나서지 않아도 지난 시즌 월드시리즈에서 3승을 올린 아마모토가 마운드를 지키고 있다는 점도 이우로 꼽혔다. 2위는 미국이다. 에런 저지(뉴욕 양키스), 폴 스킨스(피츠버그 파이리츠), 테

1·2위는 강력 우승 후보 日·美  
8강 경쟁자 꼽히는 대만 11위

릭 스쿠벨(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이 주요 선수로 주목됐다. 2023년 대회와 달리 투수진이 보강돼 역대 최강 스쿼드를 꾸렸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1라운드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8강 경쟁자로 꼽히는 대만은 11위에 올랐다. 5일 개막하는 WBC에서 우리나라는 일본, 대만, 호주, 체코와 C조에서 경쟁해 조 2위 안에 들면 미국에서 벌어지는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글=서진=연합뉴스

슬개골과 고관절의 염증

*in*hancer Plus<sup>™</sup>  
관절영양제의 혁명

#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